



## 무노동 · 무임금 칼날보다 강한 우리의 의지 조합원들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꼭 승리할 것”

사측이 휘둘러 대는 ‘무노동 · 무임금’의 무자비한 칼이 조합원의 의지를 당해내지 못하고 있다. 신바람 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64일째 파업을 해온 연합뉴스 노조 조합원들은 생활고 속에서도 굳건한 투쟁 의지만큼은 절대 놓지 않고 있다.

조합원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게 석 달째로 접어들고 있다. 상당수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허리띠를 세계 졸라맬 수밖에 없다. 조합원들은 박정찬 사장이 적극적인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회사와 사원들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성토했다면서 필승 의지를 내비쳤다.

### 숨통 조이는 무노동 무임금

노조가 이달 11일부터 옛새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조합원 162명 가운데 54명(33.3%)이 “파업 돌입 이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다소 어렵다”고 답한 조합원도 88명(54.3%)이나 됐다. “어렵지 않다”는 답변은 5%를 밑돌았다. 압도적인 다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 조합원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합원 76.5%(124명)가 가정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특히 이 중 51.2%(83명)는 혼자서 가족 모두를 부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원들의 고통은 끝내 다른 가족들에 전가되고 있다.

A조합원의 배우자는 전업주부 생활을 접고 구직 활동에 나섰다. 이 조합원은 “외벌이라서 생계를 꾸리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내가 직장을 구하려 나선 것은 순전히 파업 탓이다”라고 털어놨다.

B조합원은 “임신한 아내가 몸이 나빠 유산하려는 것 같은데도 직장을 관두지 못하고 있다. 마음은 당장 관두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면 살 수 없으니까 나도 아내도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네스 통장에서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아내 병원비나 산후조리비용을 생각하면 걱정이 크다. 식구들이 아기가 생긴 것을 맘 놓고 기뻐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당장 빌린 돈 이자를 갚거나 자녀 교육비를 내야 하는 조합원들은 ‘급전’을 구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예전에 가입했던 적금이나 펀드를 중간에 해지한 조합원이 39.1%(64명), 마이네스 통장을 만들거나 대출을 받은 조합원이 40.1%(65명)으로 각각 열 명 중 네 명꼴이었다.

조합원들은 급한 대로 노조를 찾았다. 노조가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알린 지난달 27일부터 현재까지 약 30명이 혜택을 받았다. 노조는 100만~300만원 규모의 돈을 연이율 3.5%에 빌려주고 있다.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노조를 통해 돈을 융통할 의향이 있는 조합원은 51.2%(83명)로 상당히 많았다.

한 조합원은 “파업으로 언론사 직원도 한달 ‘월급쟁이’에 불과할 수 있다는 현실을 굴욕적으로 절감했다. 다시 일터로 돌아가더라도 몸서리칠 정도로 끔찍한 생활고는 잊히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치열한 허리띠 졸라매기

밥줄이 끊긴 조합원들은 저마다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전처럼 돈을 쓰기 어려운 것은 당연지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합원들은 빌린 돈을 갚거나(53.7%), 자녀 학원비를 대는 데(49.4%) 가장 어려움을 느꼈다.

가장 먼저 줄이게 되는 지출로는 식비가 55.6%(90명)로 1위를 차지했고, 피복비(32.1%)가 뒤를 이었다.

비교적 고정적인 지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금이나 교육비보다는 당장 아끼기 쉬운 ‘의식주’에서부터 허리띠를 졸라맨 셈이다.

실제로 파업 돌입 이후 생활비를 아끼려고 한 일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외식을 삼간다’고 답한 조합원들이 가장 많았다.

가족들에게도 파업 노동자는 면구스럽다. 아버이 날이나 어린이날 선물(용돈)을 생략했다는 조합원이 30명이 넘었다.

자녀의 학원(유치원)을 끊었거나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끊으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조합원도 10여 명이었다.

한 응답자는 “파업 소식을 들은 처가에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약간의 생활비를 보내주셨다는 얘길 듣고 할 말을 잃었다”고 적었다.

‘택시를 끊고 대중교통을 탔다’ ‘외부 만남이나 외출을 자제했다’는 답도 상당수였다. ‘더는 아낄 곳이 없다’, ‘아무리 해도 줄일 게 없다’는 비명도 답변대신 나왔다.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드는 것도 점점 현실적인 선택지로 다가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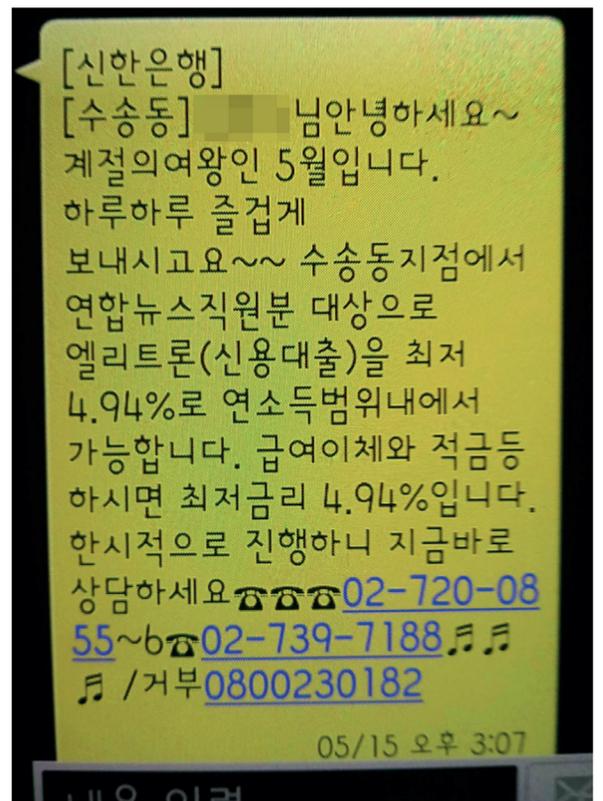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고려해본 적이 있다는 조합원이 설문 응답자 가운데

67.9%(110명)에 달했다.

소수긴 하지만 실제로 아르바이트에 나선 조합원도 있다. 최근 주변 소개로 수능 영어 문제집을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C조합원은 “그래도 숨통이 좀 트였다. 다른 일을 더 찾아볼까 싶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삶이 곤궁해지는 와중에도 박 사장과 경영진은 책임지는 조치를 미룬 채 복지부동이다. 버틸 테면 버티보라는 식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과 번민이 더 심해지더라도 싸움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것이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들의 꺾이지 않는 의지다.

D조합원은 “박 사장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차일피일 미룬 탓에 수백명의 직원들이 고통 속에 살게 됐다. 너무 힘들지만 악에 받친 만큼 노조와 끝까지 함께해 꼭 승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 “샤이보이’ 박사장? 물리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박사장에게 보내는 새내기 조합원의 발랄 무대 ‘Shy boy’

“You are my shy boy~ Oh Oh Oh Bad Boy 공정 보도 위해서 이제는 나가야 할 박 사장 Bye Bye”

경쾌하면서도 발랄한 무대였다. 하지만 조금만 귀 기울여 들어보면 신랄한 가사가 파업의 본질을 제대로 짚고 있다.

지난해 말 입사한 새내기 조합원 15명은 지난 16일 명랑체육대회에 앞서 걸그룹 시크릿의 ‘Shy Boy’를 개사한 노래에 맞춰 새 울동을 선보였다.

흰 티셔츠에 운동화, 물방울무늬의 리본 머리띠까지 맞춰 입은 이들의 무대로 조합원들은 다 함께 환호하며 공연을 즐겼다.

특히 랩을 맡은 한중찬 조합원(사진부)은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격한 몸짓과 랩으로 관객들을 자지러지게 만들었다.

다만 한 조합원은 “선글라스만 제대로 쓰고 있었어도 더 큰 재미를 선사할 수 있었는데, 선글라스가 벗겨지는 바람에 부끄러워서 제대로 못 했다”며 아쉬워했다.

화려한 무대에 비하면 준비기간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다. 지난 12일 서너명이 모여서 개사, 이틀 날 인맥을 통해 녹음실까지 빌려서 녹음을 마쳤다. 14~15일은 희망자를 중심으로 안무 연습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공연의 총 기획을 맡은 한혜원 조합원(증권부)은 “막대한 발랄함 속에서도 가사가 돋친 가사가 특징”이라며 “발랄함과 솔직함이 우리의 콘셉트”



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연습장소는 센터원 빌딩 동관 3층 체력단련실부터 종로 루브르 노래방까지 다양하다.

체력단련실 거울을 보고 연습하던 중 옆방 숙직실에서 잠을 자던 한 사원이 나와 “여기서 시끄럽게 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잔소리를 듣고 쫓겨나기도 했다.

이후 노래방의 좁은 방에 놓인 소파 위에서 춤 동작을 익혀야 했다.

한혜원 조합원은 “처음 무대를 시작할 때는 많이 부끄러웠는데 조합원 반응이 좋아 곧 자신감을 찾았

다”면서 “진심으로 뿌듯하고 기분 좋다”고 말했다.

이들의 수습 과정을 지켜본 사회부의 한 조합원은 “언젠가 일 낼 줄 알았다”면서 “수습 시절 노래방에서 보여줬던 실력이 충분히 발휘된 무대였다”고 평가했다.

성공적인 데뷔를 마친 이들의 공연, 다시 기대해도 될까.

한 조합원은 “새내기 조합원 32명 가운데 참여하지 않은 인원도 절반이 넘는다”면서 “2탄을 기대해도 되지 않겠느냐”며 다음 무대를 예고했다.

## 오늘의 파업 키워드\*

# 술

소주처럼 쓰디쓴 파업이 어언 64일째. 간밤에도 조합원들이 모인 술자리에서는 진솔한 속내와 날카로운 전략이 오갔다.

### 애주가 술잔 놓게하는 슬픈 현실

두 달째 급여를 못 받은 탓에 조합원들의 생활고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택시 대신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건 당연하고 애주가들조차 금주에 나선다. “술을 줄일 수밖에 없다. 먹더라도 단출한 안주로 독주를 마신다”는 씁쓸한 얘기가 들린다.

### 유소정 조합원(마케팅부 금융팀)

유 조합원은 광고 수주를 맡고 있어 평소에도 일주일에 사흘은 밤늦도록 업무상 술을 마셨다. 요즘은 부원들과 더 많은 술자리를 갖는다고 한다. 파업이 길어진 만큼 걱정이 많이 쌓이지만 시원한 술로 씻어내곤 한다고, 그녀에게 필요한 건 우루사 한통.

### 파주옥, 전설의 회식

파업 초창기 회사 옆 고깃집 파주옥에서 있었던 회식 자리는 전설처럼 전해져 온다.

파업체조단을 중심으로 순식간에 폭탄주 20여잔이 돌더니 ‘사원의 경고’ 노래에 맞춘 격렬한 울동이 펼쳐졌다고.

파주옥 관계자는 “한 달이 넘었는데 아주 요란했던 게 아직도 기억난다”고 했다.



### 취적 사랑방 된 찬방의 공정보도 텐트

야간에 한빛공원에서 공정보도 텐트를 지켜본 다수의 조합원들은 비슷한 얘길 했다.

“술에 취한 방문객을 접대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 3시가 된다”

패트병에 맥주와 소주를 섞어와 같이 마시자는 선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텐트 규칙 1조는 ‘금주’입니다. 간식은 환영!



### “술깃한 유혹, 하지만...”

경제국에 속한 한 조합원은 며칠 전 출입처 홍보실장으로부터 마음이 동하는 전화를 받았다. “XXX기자님, 센터원 근처 술집에 카드 맡겨둘테니 아무 때나 양껏 드십시오” 하지만 단칼에 거절했다고.

이 조합원은 “공정보도 쟁취하자고 싸우는 중인데 구약 짓을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 우리 감수성은 ‘종로스려워’

파업 중에도 매주 한 차례씩 꼬박꼬박 회식을 하는 사회부.

지난주 트렌드의 중심 흥대 앞으로 진출해 닭도리탕을 먹었는데, 식당이 흥대에서 제일 ‘종로스려웠다’고.

한 사회부 조합원은 “가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종로인지 흥대인지 알 수 없는 곳이어서 망연자실 술만 마셨다”고 전했다.

“분노하라! 연합뉴스”